



성재영

지금은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뿌리내려가고 있는 착근과 활착의 시기이다.

민주주의 학교라고 할 수 있는 지방자치는 분명 지역 발전과 국가 발전의 초석이며 필수 불가결한 정치제도이다.

개선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지방자치는 계속 유지되고 보완하여 발전시켜 나

아가야 할 시대적인 명제임에 틀림 없다.

작금의 시대적 환경에서 지역적 제는 중요해지고 다양한 역할을 지니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축제의 역할은 지역이나 취미, 같은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즐기면서 일상에서의 일시적인 일탈과 자기정화의 의미가 있다.

동시에 기본 전환과 새로운 힘을 타인과 나누고 공유하는 생산적인 측면도 있다.

그리고 축제나 문화는 경제 성장 발전을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도 하며, 경제적 성취의 지향점이 되기도 한다.

이제 지역축제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지역발

전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요소가 되어 버린 것이다.

우리 남구에서는 다가오는 10월에 다채로운 지역축제가 잇따라 열릴 예정이어서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먼저 제15회 오륙도축제가 내달 21일과 22일 양일간 열리게 된다. 지난 2년간 전국을 강타한 신종플루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의 축제가 열리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이었는데, 금년 오륙도축제가 드디어 개막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오륙도, 문화를 비추는 등대'라는 콘셉트로 펼쳐지는 이번 오륙도 축제는 우리 남구의 문화적 전통과 정체성을 담아내는 축제, 지역 대표 먹거리와 남구 경제 활성화를 위한 문화장터로서의 축제, 오륙도

의 특수성을 살린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는 축제, 백운포를 축제 장소로 활용하여 자연 사상의 교육이 결합된 축제로 그 성격을 규정할 수 있다.

뒤를 이어 'UN평화대축전' 행사도 올해 처음 열린다. 오륙도축제와 맥을 같이 하며 남구민의 자긍심과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훌륭한 매개체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UN평화문화특구로 지정된 남구만이 가지고 있는 '평화'라는 이미지를 살려낸 프로그램이 대거 기획돼 부산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대표적인 것이 UN Peace Parade 행사로 참전용사와 그 가족,

그리고 내민들이 의전차량에 올라 평화도시 남구를 외치고 각국의 전통문화를 공연함으로써 세계적인 축제로서의 성장 가능성을 가늠해 볼 것이다.

다음으로 세계 유일의 UN기념 공원에서 열리는 KBS평화음악회와 용사의 빛 추모등 밝히기 행사는 자유와 평화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보은의 정신을 함양하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내달 21일부터 9일간 열리는 제7회 부산세계불꽃축제도 주목된다.

이 축제는 부산시민의 축제로 자리 잡았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통계에 의하면 2만 여 명의 남구민이 해마다 불꽃축제에 참여한다

고 한다. 이는 결코 적지 않은 숫자로 불꽃축제도 이제 남구축제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산의 대표적인 국제행사인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에 열린다.

이번 영화제에는 70여 개 국에서 출품한 작품이 선을 뿜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바쁘고 험난하게 돌아가는 일상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남구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한마당을 이루게 될 제15회 오륙도축제를 비롯한 10월의 축제를 손꼽아 기다린다.

아울러 이 모든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사랑과 감사를 전해드리며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이 웃음과 함께 시원한 야외에서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기를 고대한다.

부산남구문화원 원장



어 의심치 않는다. 관련부서에서는 내용을 살펴 구정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 변우민(대연3동)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거짓말이 외삼촌보다 낫다>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짓말도 큰 도움이 된다는 뜻인데 그렇다고 아무 때 아무 대서나 거짓말하다가 큰 코 다치기 일쑤이다.

그런데 아직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 입만 벌렸다 하면 거짓말인데도 거짓이 얼굴을 들고 다닌다. 속이고 속는 것이 인간사라 하지만 그래도 거짓말이 판을 친다면 이제 상 살맛이 나지 않을 것이다.

제(齊)나라 왕은 우라는 약기를 좋아하여 우를 잘 부는 악사를 3백 명이나 궁에 두고 남다른 대우를 해주었다.

그때, 남작(南郭)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사실 우를 볼 줄 몰랐다. 그러나 왕이 우 연주자에게 특별한 대우를 한다는 소문을 듣고 악사 같은 처참을 하고 왕을 알현했다.

"대왕님, 저는 어릴 때부터 우를 불기 좋아했습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우의 합주대에 끼여 대왕님 앞에서 우를 불어보고 싶습니다."

왕은 남작이 훌륭한 악사일 것이라 생각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남작은 우를 입에 대고

결눈질을 하며 다른 사람의 흉내만 낼 뿐 백! 소리로 내지 못했다. 그런데 그 흉내가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누가 보아도 우를 잘 부는 것처럼 보였다.

선왕이 돌아가고 그 아들이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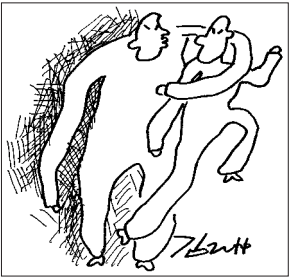
이 새 왕도 부왕과 같이 우를 좋아했다. 그런데 이 왕은 합주보다 독주를 좋아 하여 어느 날, 담당 대신에게 말했다.

"우 합주대원 중에서 누가 제일 잘 부느냐?" 대신은 걱정이 되었다. 돌아간 선왕은 합주를 좋아하여 지금까지 한 사람씩의 실력을 조사한 일이 없었다.

"한 사람이 앞으로 불러내어 우를 불게 해보아라.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잘 부는 자를 짐에게 대러 오나라!" 하고 명했다.

대신이 왕의 명령을 대원들에게 전하자, 남작은 큰일났다 생각하고 허둥지둥 다른 나라로 도망쳐 버렸다. 사실과 다르게 꾸며서 하는 말은, 하는 사람이나 속는 사람이나 둘 다 어리석은 사람이며 아무리 감쪽같이 속였다 하더라도 영원히 속이지 못하며 언제인가 들통 나기 마련이다.

변영문화가·용호1동



독자의 소리

독자의 소리란은 독자 여러분에게 활짝 열린 공간입니다. 주위의 시정사항이나 미담사례를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부산남구신문편집실 ☎ 607-4075, FAX 607-4374, bns4075@korea.kr

주민과의 소통에 나서자

필자는 얼마 전 개인적인 일로 경기도 안성에 간직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변화를 추구하는 공직자의 자세'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는 열린 현장 행정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그 방안으로써 고위급 간부 공무원 위주로 팀을 꾸려 지역별로 방문 지역을 균등하게 선정하고, 우선 공동주택 단지나 밀집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부터 순회하여 주민들과 대

화를 나눈다는 것이다.

간부 공무원의 방문을 회망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개최일시와 장소를 결정하여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하여 신청토록 했다고 한다.

이것을 연중으로 한다고 하니 우리 남구에서도 트위터나 남구 소식지, 혹은 구보나 반사회보 같은 것을 통해 미리 통지하고 구청장님을 비롯해 고위 간부 공무원과 실무자 위주로 팀을 꾸려 정기적으로 구민들을 찾아가 만나고 대화하면 어떨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월2회 방역 실시 대연3동 장백아파트 주변에 주기적인 방역을 건의하신 대연3동 정진욱씨의 의견에 답변 드립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장백아파트 부근은 수풀과 하천이 가까이 있어 우리 보건소의 방역취약지로 지정돼 월 2회 정기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환경적인 특성 등으로 모기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소에서는 이 지역에 대해 차량분무소독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모기 등 위생해충 발생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한연식>

철재 그물망 설치 대연2동 LG대리점 인근 도로 파손지 정비요청을 하신 대연2동 안현아님의 건의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립니다.

이 지역은 비가 내리면 빗물이 도로에 고여 있어 통행이 불편하므로 도로 빗물을 배출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덮개뚜껑 포장은 어려우며 통행하는 주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철재 그물망(덮개)을 설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관리과·김정일>

■詩가 있는 풍경

소원

얼마나 많이 이해하고 양보해야 하는가?

대보를 낫달을 잉태한 끝의 바다를 바라보며 한 사람을 용서해 본다.

나의 품격보다 휘어짐을 건디기 위하여

머리 위 겨울 바다의 갈경이들을 털어낸다.

바위를 차갈상 때리는 파도의 싸늘한 웃음

소원!



김연태

시인·김만1동

선거법 Q & A

Q.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서울지검청사에서 조사받고 있는 중(9월 6일 현재)인 바, 만약 서울시 교육감이 사직한다면 교육감선거직후 반환반은 기탁금과 보전반은 선거비용을 반환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A. 공직선거법 제265조의 2(당선무효원인 등의 비용반환)에 의하면 동법 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법죄로 인한 당선무효),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법죄로 인한 당선무효)의 규정에 따라 당선이 무효된 사람[그 기소()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사람을 포함한다]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위 법조에 규정된 후보자, 선거사무장 등의 죄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명이 귀즈: 위 괄호안에 들어갈 내용은 무엇일까요?

① 전 ② 후 ③ 여부와 관계없이

(퀴즈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bs.election.go.kr/namgu)에 함께 게시됩니다.)

• 정답은 10월호에 있습니다.

• 응모기간: 2011. 10. 14. 까지

• 응모방법: 이 메 일 bsnamgu@korea.kr

우편엽서 608-844 부산 남구 동계당로 267(우암동) 남구선거관리위원회

※ 응모자는 성명·주소·연락처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오.

※ 정답자를 추천하여 위원회에서 준비한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 지난해 정답: ① 19세

• 지난해 당첨자: 갈민성(대연1동), 강효숙(우암동), 진성미(대연3동)

201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합시다

- 부과대상
 - ▷ 시설물: 바락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인 영업용 건물
 - ▷ 자동차: 경유엔진 사용 자동차
- 납부기간: 2011. 9. 16~9. 30
 - (기간내 미납시 5% 가산금 부과)
 - ※ 납부기간 내 납부하여 가산금을 내는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납부방법: 시중은행 및 인터넷·가상계좌 납부
- 문의사항: 남구청 환경위생과 ☎607-4384

제7회 오륙도문학 신인작품상 모집

- 총별 및 분량
 - ▷ 시: 시조·동시: 5면 이상
 - ▷ 단편소설·동화: 200자 원고지 25매 내외
 - ▷ 수필: 3면 이상, 200자 원고지 14장 내외
- 출모자격: 만18세 이상 남·구민에 한함
- 심사위원: 당선자와 함께 공개합니다.
- 제출기한: 2011년 10월 30일까지(단일 우체국 소인 유효)
- 제출처: 608-072 부산광역시 남구 전선동로3번길 60-10 오륙도문화 편집실
- ※ E-mail : slee2723@hanmail.net/전화 010-7197-6691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안내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가 2011년 10월부터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로 확대됩니다.
- 신청자격: 만6세이상 65세미만의 등록 1급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심사를 필한 자(소득무관)
- 제외대상: 시설입소자, 30일이상 의료기관 입원자
- 급여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신청서류: 본인명의 통장사본, 건강보험증(대리신청시 대리인신분증)
- 신청장소: 거주지 동주민센터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
- 기타문의: 거주지 동주민센터, 남구청 주민복지과(607-4335)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공개모집

- 공고기간: 2011. 9. 26~10. 17.
- 설명회 개최: 2011. 10. 7. (금) 15:00, 구청 5층 대회의실
- 신청서 접수: 2011. 10. 18~10. 20. (3일간)
- 위탁운영기간: 2012. 1. 1~2014. 12. 31. (3년간)
- 문의처: 남구청 주민복지과 ☎607-4312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창구 운영

- 접수기간: 2011. 9. 1~9. 30.
- 접수방법: 남구홈페이지(www.bsnamgu.go.kr) 접속 후 「2012년도 예산편성에 바란다」메뉴방 클릭
- 참여대상: 남구 주민 누구나
- 신청내용: 주민숙원사업과 관련한 예산편성, 예산절감 방안
- 처리결과 통보: 2011년 12월 남구의회 의원 개별 통보
- 기타 사항 문의: 남구청 기획감사실 ☎607-4022

승용차요금제 참여 신청후 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총 19%의 자동차세를 경감하여 드립니다

- 참여: 월~금요일 중 선택한 요일의 오전 7시~오후 8시까지 승용차 미운행
- 신청: 차량을 가지고 구(구청행정과),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남구 교통행정과 607-4552
 - ※ 자동차세 10%경감, 공영주차장 50%경감, 교통유발부담금 30%경감 등
 - ※ 승용차요금제 미참여 차량에 대하여는 공공주차장, 공영주차장 진입 제한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재산세 성실납부 지역발전 초석된다

- 납부기간: 2011. 9. 16~9. 30.
- 납부장소: 전국은행,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 금고

부산남구신문

1996년 1월 1일 창간

발행처 부산광역시 남구 / 편집인 李 福 熙 / 편집주간 河 仁 相

부산광역시 남구 못골로 19(대연동)

남구청 대표전화(051)637-7373 편집실(051)607-4065, 4075 / FAX(051)607-4374

부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 http://www.bsnamgu.go.kr

인쇄처 부산일보사 / 월간 <비밀매물>

본지는 신문윤리강령과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